SK하이닉스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 공정, R&D

**1. 자신에게 주어졌던 일 중 가장 어려웠던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을 하게 된 이유와 그때 느꼈던 감정,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했던 행동과 생각, 결과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1000 자 10 단락 이내)**

<신뢰를 통한 위기 극복>

석사 과정중 수행한 유기 메모리에 관한 프로젝트는 지도교수님의 지도하에 박사과정 1명과 석사과정 3명이 동시에 수행하였습니다. 박사과정은 차분하고 꼼꼼하지만 모험을 두려워하였고, 제 아래 2명의 석사과정들은 활동적이고 긍정적이지만 경험이 부족해 실수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니 석사과정들의 반발심이 생겨 박사과정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아닌 학교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학교도 작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분열된 팀은 프로젝트의 수행에 있어서 큰 장벽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의 문제점을 찾기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들 남을 못믿고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열이 가운데인 저는 박사과정의 할 일과 석사과정의 할 일을 구분지어 업무를 실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같은 프로젝트 안에서 박사과정은 책임이 수반되는 업무를 맡게되고 석사과정들은 장비의 사용이나 시료의 분석 위주의 업무를 맡게 하였고 일주일에 한번씩 서로의 업무에 대한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누어진 업무로 인해 본인의 일에 대한 책임감도 증가되고, 서로의 업무에 대한 공유로 인해 대화가 늘어나 자연스럽게 어색했던 관계도 호전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과신해 연구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려던 욕심을 버리고 팀원들을 믿고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위주로 공부하며 진행하니 서로간의 신뢰도 쌓여져 갔습니다. 문제를 느끼면 묻어두거나 피하지 말고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팀 프로젝트의 경험으로 회사에 입사해서 팀으로 일을 수행할 시 다가올 많은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2. 이제까지 가장 강하게 소속감을 느꼈던 조직은 무엇이었으며, 그 조직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일과 그 때 했던 행동과 생각, 결과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1000 자 10 단락 이내)**

<첫 번째 사회생활>

제 첫 번째 사회생활은 대체복무를 한 세원 텔레텍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사출 공장을 운영하시는 아버지께서는 항상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던지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산업기능요원이라는 생각보다는 정규직 사원들보다 더 애정을 갖고 회사 생활에 임하였다고 자부합니다.

2008년 세원텔레텍 엄청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리하여 회사에서는 입사초부터 제품의 생산성 향상 및 자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소자 하나하나에 코드를 부여하여 입고에서 출고까지의 모든 상황을 전산상으로 파악하는 ERP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입사 후 3개월은 병역특례 사원이 해야하는 생산 라인에서의 일을 담당하였으나, 30명의 병역특례 인원 중에서 팀장 직속으로 뽑혀 ERP 시스템을 다루게 되어 회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조부에서 자재가 입고되어 수입검사를 거쳐 자재팀으로 이관되고 시험팀에서 제품을 만들어 출하검사에서 제품을 검사하고 포장이 완료되어 완제품이 출고되기까지의 모든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일을 하였습니다. 생산에 관련된 작업만을 해야하는 산업기능요원의 업무보다는 팀장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대신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팀들과의 마찰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ERP 시스템을 다루는 과정에서 완제품 외에 불량제품들의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 시간을 잡고 가득 쌓여 있던 창고를 정리하였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던 불량 제품 중 쉽게 고칠 수 있는 불량들은 수리하고 악성 불량 제품들은 분류하여 기구물이나 고가의 부품들을 재활용하여 사용하도록 건의 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묵혀있던 부품들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 해의 제조부 내의 불량률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어 제품의 생산단가를 줄이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처럼 전체를 볼 수있는 시야를 갖고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고자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3. 자신에게 요구된 것보다 더 높은 목표를 스스로 세워 시도했던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표 달성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이나 그 때 느꼈던 자신의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했던 행동과 생각, 결과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1000 자 10 단락 이내)**

<발로 뛰는 연구>

학사과정을 기말고사로 마무리하고 12월 중순부터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 하이브리드 전자소자 연구실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처음 연구실에 들어올 때 지도교수님과 석사과정중에 SCI 급의 논문을 써보자 라는 목표를 주셨습니다. 저는 타대학생으로 자대생들에게 뒤쳐지지 않겠다는 포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가는 실험 데이터는 늘어나지만 데이터만 쌓일뿐 아이디어도 고갈되고 연구의 질은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좌절하지 않고 처음 참고 논문으로 보았던 KIST 전북 분원의 김태욱 박사님께 직접 연락을 드렸습니다. 유기 메모리를 연구하는 학생이라고 소개하고 조언을 얻고자 KIST 전북 분원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직접 만나뵌 김태욱 박사님께서는 이론적인 설명에서부터 아이디어도 공유해 주시며 혼자서 연구하며 고민하며 자칫 한 방향만을 볼 수 있었던 저에게 방향 제시와 함께 많은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위기상황이나 돌발상황이 오게되면 쉽게 당황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오는 위기상황에 당황하거나 좌절하기 보다는 다가온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가온 위기를 발로 뛰어 극복하여 2013년 1월 SCI급 논문 1편, 2014년 2월 SCI급 논문 1편을 발표하여 2편의 SCI급 논문을 발표하였고 1편의 SCI급 논문을 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국내 논문 2편, 국내 학술대회 4회, 국제 학술대회 1회의 참가한 실적으로 인하여 2014년 2월 21일 졸업식에서 IT공과대학 대표로 대학원장 표창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이처럼 석사 생활동안 노력뿐만 아니라 다가온 위기를 극복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줄 아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4.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시도하여 이전에 비해 조금이라도 개선했던 경험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방식을 시도했던 이유,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 진행 과정에서 했던 행동과 생각, 결과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1000 자 10 단락 이내)**

<신입사원 교육을 대체한 작업지도서>

제게 첫 직장이었던 세원텔레텍에서의 대체복무 생활은 애정이 많은 회사이기도 하지만 정규 사원들과의 차별 때문에 힘든 기억도 많았습니다. 월급도 같고 인사고과의 평가에 따른 성과급 또한 균등하게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2개월의 계약기간이 있었기에 정규 사원에게 지원되는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않고 일을 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중계기 안에 들어가는 신호를 증폭해주는 엠프라는 증폭기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본인이 어떤 회사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원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제가 입사한 2008년을 마지막으로 2009년부터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정규 사원을 뽑는 대신에 시급제 사원들과 병역특례 사원을 충원하는 것을 선호하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니 그나마 있던 교육마저도 줄어들면서 신입사원들의 힘듬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제품을 많은 양을 양산한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여러 제품을 동시에 적은 양을 양산한다면 한번도 안해본 제품을 신입사원이 진행할 때 한사람의 능력도 발휘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일의 능률을 높이고 작업의 손실을 줄이고자 아버지 공장의 작업지도서를 생각했습니다. 다들 본인들이 진행했던 모델을 노트에 메모하는 분위기여서 오래된 사원들의 노트들을 기본으로 작업지도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팀들과 일을 같이하며 안면이 있던터라 팀장급들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진행하여 회사 생황의 반을 이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결국 회사를 나오기 전에 그때까지 진행된 모델들의 작업지도서를 제작하여 각 팀들에 배포하여 별다른 교육 없이도 손쉽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이 주어지든 조금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5. SK 입사 후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며, 이를 위해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1000 자 10 단락 이내)**

<소통과 협력에 앞장서는 연구자>

기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력을 얻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연구 개발 분야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구 개발의 속성은 대학원 시절에서 무언가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을 즐겨하는 저의 속성과 맞는다고 생각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연구자를 꿈꾸던 저는 대학원 시절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분야를 접해보고 우리 연구실의 실정에 맞는 연구 분야의 주제를 설정하여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반도체 공정을 익히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실험과 논문작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로 SCI급 논문 2편, 국내 논문 2편, 국내 학술대회 4회, 국제 학술대회 1회의 연구 실적으로 대학원장 표창장을 수여하며 연구자의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연구 실적과 함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학부 생활 당시 과대표를 3년간 역임하면서 선후배와의 관계에 힘썼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병역특례 사원의 맏형으로써 일반 사원들과 병역특례 사원들간의 관계에 힘썼고, 석사 과정에는 타대생과 자대생간의 벽을 허물도록 노력하고 같은 프로젝트에서의 사람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려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결론은 협력하는 삶입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석사 과정 중의 실적 또한 저 혼자만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성향의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 상황안에서의 소통과 협력에서 배웠습니다. 나는 하나이지만 팀안에서의 나는 조화와 협력으로 1+1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의 소통과 협력에 앞장서는 성향으로 SK하이닉스의 자랑이 되리라 확신합니다.